



BC 의료직 종사자의 예방접종 Immunization for Health Care Workers in B.C.

왜 예방접종은 의료직 종사자에게 중요한가?

의료직 종사자는 작업 중 질병에 감염될 위험을 가진다.

예방접종은 여러 질환을 막을 수 있다. 면역력을 갖는 것은 자신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자 및 가족, 친구에게 질병이 옮는 것을 막아준다.

B.C.주에서는 어떤 정기 접종이 권유되는가?

의료직 종사자에게 권유되는 백신은 디프테리아, 파상풍, 소아마비, B 형 간염,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수두, 인플루엔자가 있다. BC 의료직 종사자는 무료로 접종할 수 있다.

직원의 면역은 직업 건강부 혹은 직장에서 담당 직원의 책임이다. 회사와 직원은 접종과 건강 테스트 결과에 대한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디프테리아, 파상풍, 소아마비

소아마비: 소아마비 1 차 백신은 전 의료직 종사자에게 권장된다. 성인 대부분 어릴 적 1 차 소아마비 백신을 맞았을 것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 1 차 소아마비 접종이 권고된다. 의료직 종사자는 1 차 백신 접종 10년 후 부스터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

예방접종이 일반화 된 이후 소아마비란 병은 전 세계 대부분 사라지게 되었다. 1994년 캐나다는 “소아마비 없는” 국가로서 인정되었다. 캐나다에서 소아마비에 걸리는 경우는 소아마비가 여전히 존재하는 국가 사람들과 접촉한 경우이다. 이런 국가로 여행하는 자는 소아마비에 노출될 수 있으며 반드시 예방 접종을 해야 한다. 대부분 소아마비 감염은 증상을 동반하지 않으나 일부의 경우 마비와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디프테리아, 파상풍: 디프테리아와 파상풍 접종은 캐나다 모든 성인에게 권장된다. 파상풍과 디프테리아 부스터샷은 매 10년마다 접종하는게 좋다. 부스터샷은 큰 상처를 입거나 (별례에 물린 경우 포함) 상처 부위가 더러워진 경우 더 일찍 맞을 수 있다.

디프테리아는 중한 전염병으로서 전체 사례에 5-10퍼센트의 사망률을 초래하며 주로 어린이와 노년층에 매우 높은 비율로 나타난다.

파상풍은 급성질병으로 주로 치명적일 수 있으나 캐나다에서는 드물게 나타난다. 지난 사례를 보면 더러운 상처, 동물에게 물림, 오염된 마약투여 도구와 연관성이 있었다.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홍역: 홍역으로부터 면역이 생겼음을 입증하기 위해 홍역 백신 2회분량 투여 접종이나 자신이 (실험실에서 홍역이라고 확증한) 홍역을 앓았다는 증거가 필요하다. 1957년 이전 출생자는 홍역을 겪었으므로 면역을 갖추었다고 간주한다.

홍역은 매우 전염성이 강한 질환으로 유아, 어린이, 약한 면역 체계를 지닌 성인에게 더욱 심하게 발병한다. 홍역의 합병증으로는 폐의 감염인 폐렴, 뇌의 염증인 뇌염이 있다. 뇌염은 발작, 귀머거리 혹은 뇌의 손상로 이어질 수 있다.

유행성 이하선염: 유행성 이하선염에 대한 면역을 입증하기 위해 자신이 과거에 (실험실에서 확증한) 유행성 이하선염을 앓았거나, 자신의 연령에 맞는 유행성 이하선염 백신을 투여 받았다는 것을 제시해야 한다. 1957년에서 1969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은 1회분 백신이, 그리고 1969년 이후에 출생한 자는 2회분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 1957년 이전에 출생한 자는 유행성 이하선염을 앓았으므로 면역력을 갖춘 것으로 간주한다.

유행성 이하선염은 보통 경미한 질환이다. 하지만 성인에게는 뇌염과 같은 합병증이 발할 수 있다.

풍진: 의료직 종사자는 연령에 관계없이, 그리고 예전에 (실험실에서 확증한) 풍진을 앓았는지와 상관없이 풍진 백신 1회분 투여에 대한 증명이 필요하다.

성인의 풍진 감염은 관절이 붓거나,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 임신 첫 3개월간 감염될 경우 자라나는 태아에게 심한 해를 가할 수 있다; 10명 중 9명의

태아는 선천적으로 시력, 청력, 심장, 뇌에 손상을 입고 태어날 것이다. 의료 시설의 풍진 발병은 의료직 종사자 중 임신한 자나 임산부 환자에게 전염될 잠재적 위험에 대한 우려가 있다.

B 형 간염

B 형 간염 접종은 혈액 및 체액에 노출될 수 있는 의료직 종사자에게 권장된다. 일련의 B 형 간염 접종을 받고 실험실 테스트 결과 면역력이 확인되는 경우 면역 상태를 갖췄다고 간주한다. 일련의 백신 접종 후에도 면역력을 나타내지 않는 경우(비반응자) 2 차로 일련의 백신을 접종한다. 접종 후 1 개월에서 6 개월 후 B 형 간염 항체 레벨을 확인함으로써 면역력 확인이 가능하다.

B 형 간염은 간을 공격하는 바이러스이다. 영구적 간 손상(간경변)을 포함한 심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B 형 간염은 또 간암의 주요 원인이 되며 이는 치명적일 수 있다.

수두

수두 접종은 면역력을 갖추지 않은 의료직 종사자에게 권유된다. 면역력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출생 12 개월 후 수두나 대상포진에 대한 자체 보고, 면역력 보유에 대한 실험실 테스트 결과, 혹은 연령에 적합한 일련의 수두 백신의 접종 기록을 제시해야 한다.

과거 병력이 불분명한 개인의 경우 수두에 취약한지를 알기 위한 시험을 거쳐야 한다. 취약자의 경우 최소 6 주 간격으로 2 회에 거쳐 접종한다.

수두는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다. 십 대, 성인, 약한 면역 체계를 지닌 사람이 감염될 경우 보다 심각한 형태로 나타난다. 수두의 합병증으로 폐렴, 뇌염, 피부의 박테리아 감염이 있다. 약 3,000 명의 성인 중 1 명은 수두 감염으로 사망한다.

독감

매년 독감 백신은 의료직 종사자에게 권고된다. 모든 의료직 종사자는 환자, 가족, 친구에게 독감 바이러스를 옮기거나 옮을 위험을 갖고 있다. 특히 독감 합병증에 취약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옮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노인, 심장이나 폐 질환을 앓고 있는 자, 면역력이 약해진 자, 또는 다른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자를 들 수 있다.

의료직 종사자의 독감 접종은 장기 치료 환자의 질병 및 합병증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독감 시즌 동안 다른 직원의 감염률도 줄여준다.

독감은 독감 바이러스에 의한 상기도(上氣道)의 감염이다. 독감 환자에게는 바이러스성 혹은 세균성 폐렴과 같은 다른 감염의 위험이 따른다.

백일해

국립 면역 자문 위원회는 어릴 적 접종을 마친 전체 성인에 대해 백일해 백신 부스터샷을 추천한다. BC주에서 부스터샷은 성인에게 일반적으로 무료로 제공되지 않는다. 하지만 의료직 종사자는 직업 보건부로부터 부스터샷을 무료로 접종할 수 있다. 이 백일회 부스터샷은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신과 함께 투여된다.

‘백일기침’이라고도 알려져 있는 백일해는 백일해 박테리아에 의한 기도의 중증 감염이다. 백일해는 수개월간 심한 기침을 유발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합병증으로 폐렴, 발작, 뇌 손상, 사망이 있다. 이러한 합병증은 주로 유아에게 가장 흔하게 나타난다. 유아 환자 170명 중 1명꼴로 사망할 수 있다.

더 자세한 정보

의료직 종사자에게 권장되는 예방접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 수록된 HealthLinkBC Files 을 참조한다:

- [#12d 인플루엔자\(독감\) 접종](#)
- [#13 소아마비\(IPV\) 접종](#)
- [#14a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MMR\) 접종](#)
- [#18a 파상풍과 디프테리아\(Td\) 접종](#)
- [#18c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 접종](#)
- [#25a B 형 간염 접종](#)
- [#44b 수두\(대상포진\) 접종](#)



BC Centre for Disease Control
An agency of the Provincial Health Services Authority